

임지현 '반전의 세계사' 1980년 광주, 1943년 바르샤바, 1600년 로마

살아남은 자 부끄러움의 기억, 12·3 참극 비화 막았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두운 학살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꺼내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시적으로 표현한 한강의 수상 소식은 거의 반사적으로 폴란드 출신의 계보 시인 체스와프 미워쉬를 떠올리게 했다.

그 기시감은 우선 두 사람의 문학이 1980년 5월 광주와 1980년 8월 그단스크라는 1980년의 지구적 냉전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데서 왔을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사회주의 정권이 거러 시위에 나선 41명의 노동자를 학살한 1970년 그단스크의 비극은 1980년 레닌 조선소의 '연대노조' 운동으로 승화되었다. 폴란드 노동자들의 승리는 같은 해인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의 학살로 절망과 비탄에 빠진 동시대의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다.

80년대 폴란드 방송, 한국 '가투' 연일 보도
그해 여름,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한 폴란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두환 정권의 반공주의적 체제 검열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폴란드 노동자들의 반체제 시위는 5공의 반공 독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폴란드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1980년대 내내 뉴스 시간마다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가투'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1980년 5월의 광주와 1980년 8월의 그단스크가 한국과 폴란드의 국제정치적 지형 속에서 그렇게 얽혔을 때, 한국 소설가 한강과 폴란드 시인 미워쉬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얽혔다. 지구적 냉전체제가 무너진 21세기 들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어 판에 앞서 폴란드어로 먼저 번역되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가부장적 폭력을 일상에 침투한 정치적 폭력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상상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강의 작품을 읽다 보면 나는 너무나 자연스레 미워쉬의 시편을 떠올리곤 했다. 나치의 그로테스크한 폭력과 숨막힐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바르샤바에서 쓴 그의 시편들은 묘하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중첩되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기억의 역사를 연구하는 내게 미워쉬는 나치의 압제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운 민족적 자부심 대신 유대인 이웃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부끄러움의 기억을 일깨운 독특한 시인으로 남아 있다.

미워쉬의 시 '가련한 기독교인 계도를 바라보네'는 재림 예수가 모든 폴란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학살의 도우미'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다듬어 준다. 그는 나치 살인자들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이웃들도 유대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탈론적 수사로 전하고 있다. 나치의 압도적인 폭력에 맞서 싸우는 폴란드 레지스탕스 전사들의 용기를 상찬하는 대신 홀로코스트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도덕적 죄의식을 건드리고 그의 시는 언제 읽어도 그 로테스크하다.

1980년 광주 희생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살아남은 자의 도덕적 곤경에 대한 한강의 깊은 시선은 1600년 로마 '피오리 광장'의 이단 화형식과 1943년 바르샤바

'당신 장례식 못 치러 내 삶 장례식'
한강 소설 광주 희생자 존엄 일깨워

'남은 자 남기고 싶은 말 하나 없네'
폴란드 시인, 게토 방관 죄의식 표현

군대에 의한 민간 학살 악몽 떠올려
병사들 수동적 저항, 불법 계엄 저지

의 게토 봉기를 횡단하는 미워쉬의 시선과 의미 있는 눈길을 주고받으며 교차한다. 율림이 깊은 이들의 시적 언어를 통해 1600년 로마의 피오리 광장과 1943년 바르샤바 게토의 보나 브라테르스카 거리, 그리고 1980년 광주의 충장로가 겹쳐지는 광경은 압도적 경험이다. 실제 역사에서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이 한강과 미워쉬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시공간을 넘어 일제히 되살아나서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다.

미워쉬의 시 '피오리 광장'은 이단으로 몰려 로마의 그 광장에서 화형당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스트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와 그의 고통에도 아랑곳없이 흥겨운 일상을 즐기는 로마 시민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1600년 피오리 광장의 야만적 화형식의 제마난 구경꾼 로마 시민들의 모습은 돌연 1943년 게토 옆 크라신스키 광장에서 회전목마를 타며 화창한 일요일을 즐기는 바르샤바 시민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게토의 담장 저편에서 포연이 피어오르고 기관총 소리와 포성이 쿵쿵거리는 봉기의 소란에도 아랑곳 없이 회전목마를 즐기는 쾌활한 일요일의 바르샤바 시민들은 화형당하는 브루노를 멍하니 쳐다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간 르네상스 로마 시민들과 같은 방관자들이다.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로마의 조르다노 브루노와 장벽 너머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겹쳐 있는 시적 폴라주는 처연하다.

시인은 홀로 죽어가는 조르다노 브루노의 고독을 생각한다. '바로 그날 나는 생각하네/죽어가는 자의 외로움/장작더미에 오르/조르다노의 고독/남아 있는 사람들에게/사람의 말로/남기고 싶은 말은/하나도 없네.' 미워쉬는 게토 봉기가 한창이던 1943년의 부활절, 4월 25일 이 시를 썼다. 부활절 아침 아빠 손을 잡고 '오르와' 거리를 걷던 에바 베르베리우쉬(Ewa Berberyusz)는 게토에서 피어오르는 포연을 본 순간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한다.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나치의 압도적 폭력 앞에서 폴란드인들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록체가 됐다.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직후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 <중앙포토>

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설혹 모든 폴란드인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해도-실제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560만 명의 폴란드인이 목숨을 잃었다-, 홀로코스트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길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증오로 건설되었지만 평범한 이웃들의 무관심으로 포장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인 이웃들을 방관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역사적 성찰에서 종종 더 중요한 것은, 실정법적 죄 여부를 떠나서 종교적·윤리적 죄책감이나 그것을 느낄 줄 아는 부끄러움의 도덕성이다.

냉대 속에 쓸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데 있다.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때문에 폴란드인 이웃들은 유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부분 침묵으로 방관했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길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증오로 건설되었지만 평범한 이웃들의 무관심으로 포장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인 이웃들을 방관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민주 회복한 시민 힘, 정쟁 도구 대신 안 돼
'압도적 폭력이 지배하는 나치 지배하에서는 누

구도 홀로코스트를 막을 수는 없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당함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곤경에 빠진 유대인 이웃을 위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은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상황의 압도적인 힘에 책임을 돌리는 역사가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기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이다.

12·3 계엄 쿠데타를 막은 것은 심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앞서 국회에 진입한 이름 없는 병사들의 수동적 저항이었다. 이는 1980년 광주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병사들의 도덕적 죄의식에 대한 성찰적 기억이 축적되고 공유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은 명령권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명령에 따라 학살에 가담한 병사들의 도덕적 죄의식과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움을 물을 때 미래로 열려 있을 것이다.

12월 3일 밤의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은 개개 병사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광주에서 벌어진 공권력과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성찰적 기억이었다. 1600년 로마 피오리 광장의 브루노 화형에 대한 기억과 1943년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 종교적 원리주의와 배타적 인종주의를 견제 하듯이, 1980년 광주에 대한 동시대 한국인들의 성찰적 기억이 새삼 소중한 이유이다.

불법 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지만, 이에 대한 기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곤란하다. 기억의 전달 또한 장기적으로는 권력의 전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모든 당사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반사적 정의를 선점한 정치적 정당성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서강대에서 서양사 전공. 대표 저서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2021), '기억 전쟁' (2019), '대중 독재' (2004), '우리 안의 파시즘' (공저 1999) 등이 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